

# TV와 함께 나 자신 들여다보기

## 대중문화 시대를 이끄는 책 ⑤

김창남

문화비평가·서울대 강사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미디어를 꼽으라면 당연히 TV를 꼽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하루 평균 TV를 시청하는 시간은 가족 단위로 볼 때 5시간반, 개인 단위로 보면 두시간 반이 넘는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시간을 대략 오후 6~7시 이후로 본다면 결국 이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TV는 계속 우리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TV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린이들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보다 TV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 가정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토록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는 TV에 대한 우리들의 진지한 인식과 사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아는 만큼 즐긴다’

사람들은 자신과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진지하게 인식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저 당연한 것, 늘 거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의식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보려 하지 않는다. TV도 그런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영화나 문학에 대한 연구와 비평은 활발하고 관련된 책도 많이 나왔지만 TV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사람들은 TV를 보려고 할 뿐 그에 대해 공부하거나 진지하게 사고하려 하지 않는다. TV야 그저 보고 즐기면 그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 TV는 보고 즐기면 된다. 그러나 그것을 ‘잘’ 보고 ‘잘’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는 법이다. 많이 알면 그만큼 더 즐길 수 있다.

TV에 관해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방송학 개론이나 무슨 무슨 원론 같은 제목이 붙은 책들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외국의 연구서들을 번역한 책들도 마찬가지이다. 대개의 경우 이런 책들은 읽기도 쉽지 않거나 신문방송학 전공자들이 아닌 다음에는 흥미를 느끼기도 어렵다.

앤드류 굿윈과 케리 웨일리가 엮은 《Under-

- TV를 보는데 골치 아프게
- 책까지 읽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 너무나 일상적이고 쉽고 하찮게
- 보이는 TV이기 때문에 우리는
- 좀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 TV를 공부한다는 것은
- TV의 그 나쁜 일상성에
- 젖어 있는 나 자신을
-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일이다.

standing Television》을 하중원과 김대호가 번역한 《텔레비전의 이해》(한나래, 1995)는 이 점에서 예외적이다. 이 책은 TV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여러 연구자들의 글을 모았다. 번역서이긴 하지만 난해한 이론서는 아니고 입문적 교양서라 할 수 있다. 뉴스, 다큐드라마, 시트콤, 쇼 오페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장르에 대한 관점들이 소개되고 있고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사, TV의 대중문화적 특성, 시청자의 문제 등 TV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주제들이 정리되어 있다. 한가지 흠이 있다면 영국에서 나온 책이라 주제와 관련한 예들이 대부분 우리가 시청할 수 없었던 영국 TV의 프로그램들이라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TV에 관한 우리의 기초적 소양을 일구는 데 유용한 책이다.

### TV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TV문화를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방송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들의 육성을 통해 방송무대의 뒷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으로 한국프로듀서연합회가 엮은 《어제 그 프로 봤어》(친구, 1991)와 KBS PD로 서울대 신문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성욱이 쓴 《PD의 꿈, 나비의 꿈》(한울, 1995)을 꼽을 수 있다. 《어제 그 프로 봤어》는 각 방송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제작한 프로듀서들이 자신의 체험담을 엮은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TV에 대한 진지한 사고가 필요하다.

책이다. 화면에 비친 내용만을 접할 수밖에 없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능하기 어려운 제작 현장의 이면, 제작자들의 고충, 방송사 내부의 갈등과 역학 등을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

방송사 경력 5년의 젊은 PD 정성욱의 체험적 방송론이라 할 수 있는 《PD의 꿈, 나비의 꿈》은 특히 방송 PD를 꿈꾸는 예비 직장인들에게 권할 만하다. 프로듀서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저자 나름의 체험을 바탕으로 담담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90년 4월 KBS 노동조합의 방송민주화 운동을 비롯, 저자가 방송사 생활 동안 겪은 크고 작은 방송계의 현안에 대해 적은 단상들은 방송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좋은 방송’을 고민하고 있는 젊은 방송인의 생각을 엿보게 해 준다.

TV를 보는 시각을 다듬고 넓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방송에 대한 비평의 글들을 읽는 것이다. 강준만 교수는 가장 날카로운 시각으로 TV문화를 해부하는 비평가의 한 사람이다. 그의 비평들을 모은 《요즘 TV 볼 만합니까》(한울, 1992)를 통해 우리는 TV화면의 드러난 부분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의미들을 파헤치는 탁월한 혜안을 접할 수 있다. 조금 시의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겨레신문에 여러 해 동안 연재된 비평문들을 모은 《TV를 읽읍시다》(한울, 1991)도 TV읽기의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좌담과 교양, 드라마, 오락 등 프

로그램의 주요 장르에 대한 개괄적 해설을 덧붙이고 있어 도움이 된다.

### 새로운 지적 담론의 중심

최근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TV 역시 새롭게 지적 담론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책이 《TV 가까이 보기, 멀리서 읽기》(현실문화연구, 1993)이다. 대개의 TV비평이 신문이나 잡지의 짜투리면에 실리는 탓에 원고지 10매 내의 분량의 인상비평 이상이 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 책에 실린 비평문은 글마다 상당한 깊이와 중량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선 돋보인다. TV를 ‘보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역설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백지숙의 《텔레비전이 나를 본다》는 발군의 통찰을 보여주는 글이 실려 있고,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을 동원하여 TV문화 자체를 패러디하고 있는 편집형식도 독특해서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TV를 보는데 골치아프게 책까지 읽을 필요가 있을까?’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일상적이고 쉽고 그래서 하찮게 보이는 TV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 좀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TV를 공부한다는 것은 TV의 그 나쁜 일상성에 젖어 있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일이다. 나 자신을 안다는 것, 그것 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이 복잡하고 헛갈리는, 그래서 자칫하면 나 자신을 잃기 십상인 세상에서 말이다. ❖